

피겨 이해인, 4대륙선수권 우승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서 총 141.71점
김예림, 프리스케이팅에서 2위에 올라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세화여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은퇴) 이후 14년 만에 우승했다.

이해인은 지난 1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4.96점, 예술점수(PCS) 66.75점으로 합계 141.71점을 기록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9.13점으로 6위에 그쳤던 이해인은 프리스케이팅에서 분전하며 총점 210.84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의 4대륙 선수권 우승은 2009년 김연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던 이해인은 1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이해인은 이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음악에 맞춰 연기를 펼쳤다. 홀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쇼트 프로그램에서의 아쉬움을 모두 만회했다.

경기를 마친 이해인은 매니저먼트사

인 울렛스포츠를 통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생각으로 임했다. 쇼트 경기에서 아쉬운 점들을 빨리 잊고 프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 정말 기쁘고 값진 메달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보내주시는 응원이 큰 힘이 됐다. 남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즐겁게 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1위(72.84점)에 올랐던 김예림(단국대)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36.45점을 받아 총점 209.29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예림은 "지난해 동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클린 연기가 목표였는데, 마지막 실수가 조금 어렵긴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출전한 김채연(수리고)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31.00점을 받았다. 총점 202.39점으로 4위를 마크했다. /뉴시스



이해인이 지난 11일(한국시간) 미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 여자 싱글 정상에 올라 시상식에서 관중에 축하에 답하고 있다.

2021년 10월 희망대사에 위촉된 김연경은 1억원 이상 고액 기부 모인인 희망브리지 어너스클럽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다시 한 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김연경 희망대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간단히 기부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국민께서도 참여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뉴시스

리그 U-22 의무규정 또 논란

대학감독 "폐지하라" 항의

22세 이하 선수를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 의무적으로 출전시키는 규정이 또 논란에 휘말렸다. 대학 축구부 감독들이 이 규정을 폐지하라며 단체 행동을 했다.

한국대학축구지도자협의회(대학지도자협회)는 지난 1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제50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U-22 의무 출전 규정으로 22세, 23세 젊은 대학 축구 선수들은 취업조차 어려운 나라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은 해당 나이(U-22)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 진출이 더 힘들어진 다"며 "1~2학년 선수들이 아닌 고학년 선수들은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프로 진출을 하더라도 계약 형태가 좋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K리그의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이 대학 축구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왔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규정이 유소년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젊고 실력 있는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는 선수권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자랑한다.

아울러 이 규정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국제 대회 성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나온다.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9 FIFA U20 월드컵 준우승 등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국가대표팀 주축인 김민재와 황인범이 이 제도를 바탕으로 K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꾸준히 얻었다. 유망주들이 K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얻게 함으로써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측면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2세 이하 선수 중 기량이 뛰어난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투입되면 서 리그 수준이 떨어졌다는 점이 나왔다. 반대로 기량이 뛰어난 22세 이하 선수들의 몸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졌다. 22세 이하 출전 규정을 지키면서 경기력까지 향상시키

국제대회 성과, 유망주 성장 등 성과 있어 대학팀·선수 소외 부작용...조기 교체 필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규정은 22세 이하 선수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K리그 경기에 선발로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세 이하 선수가 선발 명단에 1명, 대기 명단에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22세 이하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대기 선수 1명이 교체로 투입되면 해당 팀에게는 경기당 교체 인원이 5명까지 주어진다.

만약 22세 이하 선수가 선발로 1명만 출전하고 교체 투입이 없으면 최대 3명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22세 이하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으면 경기당 교체 인원은 2명으로 줄어든다.

22세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의 모태는 2013년 시작된 23세 이하 선수 출전 규정이다. 정몽규 현대 한축구협회 회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이던 2012년 23세 이하 선수 출전 규정을 제안했고 2013년부터 시행했다. 2019년부터는 K리그에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됐다.

이 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있어

려는 구단들이 기량이 뛰어난 어린 선수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 축구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고교 졸업 후 K리그나 해외 리그로 가는 선수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K리그가 이 규정을 만들면서 대학팀들로서는 선수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22세까지 프로로 가지 못한 대학 선수들은 몸값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22세가 넘으면 아예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한 필수도 눈에 띈다. 일부 K리그팀은 22세 이하 선수 2명을 선발로 넣었다가 10여분 만에 교체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은 2022 카타르월드컵 전에 이 같은 조기 교체 행위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은 올 시즌 K리그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김연경,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복구 위해 모금활동 나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캠페인 시작
카카오 기부 플랫폼 '같이가치' 통해 1000만원 기부

배우여제 김연경(36)이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인다.



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재건과 회복에 쓰인다.

김연경은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연경이 소속사 라이언넷 관계자는 "김연경이 참혹한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동참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연경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00만원을 보냈다. 2021년에는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처했거나 처할 가능성이 큰 재난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3000만원을 냈다.

카카오 기부 플랫폼인 '같이가치'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성금은 강진으